

錢鍾書의 陸游論*

이 치 수**

<目次>

I. 들어가는 말	3. 陸游와 楊萬里 詩 比較
II. 錢鍾書 陸游論의 주요 내용	4. 陸游의 中·晚唐詩 評價
1. 陸游의 呂本中 ‘活法’ 理解	5. 陸游 詩의 缺陷
2. 陸游의 梅堯臣 詩 推仰	III.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陸游는 南宋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일컬어지며, 그의 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錢鍾書(1910~1998)도 《談藝錄》을 비롯하여 《宋詩選註》, 《管錐篇》, 그리고 《錢鍾書手稿集》 등의 저작물에서 육유와 그의 시에 대해 담론을 행했다. 그는 이들 저작물을 통해 육유 시의 특색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 또는 육유 시에 호된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나온 육유 관련 연구 중에는 바로 이 전종서가 육유를 평한 말을 일부 언급하는 글들이 있는데, 육유 시 특색을 논한 그의 견해에 찬동하며 그의 육유론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¹⁾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이를테면 王水照·熊海英, <陸游詩歌取徑探源——錢鍾書論陸游之一>(《中國韻文學刊》 2006年 1期), 熊海英·王水照, <陸游的詩歌觀>(《中國韻文學刊》 2007年 第21卷 第3期), 呂肖奐, <錢鍾書的陸游詩歌研究述略>(《四川大學學報》 2006年 第6期) 등.

또 일부 글에서는 전종서가 육유와 그의 시를 논한 글들 간에 견해가 서로 相馳되는 부분이 있음을 제기하거나, 일부 문제와 관련하여 전종서와 다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²⁾ 전종서의 陸游論은 여러 측면에서 육유와 그의 시를 논평하면서 육유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관련 참고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육유와 그의 시에 대해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좀 더 깊이 살피며 검토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전종서가 陸游論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육유와 그의 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피하며 새로운 이해를 찾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II. 錢鍾書 陸游論의 주요 내용

전종서의 육유에 관한 담론은 주로 《談藝錄》, 《宋詩選註》, 《管錐篇》, 그리고 《錢鍾書手稿集》 등에 보인다. 그중에서도 특히 《談藝錄》과 《宋詩選註》에서는 따로 章을 마련하여 육유와 그의 시를 논하였으며, 분량상으로는 《談藝錄》이 제일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이 두 책에서 논한 바를 중심으로 하면서, 다른 책에서의 언급도 필요에 따라 살피기로 한다. 《談藝錄》에서 전종서가 육유를 논한 부분은 모두 여섯 條目이다. 目次에서는 각 條마다 제목이 따로 있으니, 제32조 ‘劍南與宛陵’, 제33조 ‘放翁詩’, 제34조 ‘放翁與中晚唐詩人’, 제35조 ‘放翁詩詞意復出議論違悞’, 제36조 ‘放翁自道詩法’, 제37조 ‘放翁二癡事二官腔’이다. 그리고 《宋詩選註》에서는 항목을 따로 나누지는 않았는데, 육유 小傳에서 육유 시의 주된 내용 두 종류와 후세에의 流傳과 受容 상황, 육유의 ‘詩外工夫’

2) 이를테면 李廷華의 <悲歌與笑柄——錢鍾書先生筆下的兩個陸游>(《唐都學刊》 1998年 第1期), 趙明의 <陸游是否“違心作高論”——讀錢鍾書《談藝錄》劄記一則>(《西昌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11年 第23卷 第6期), 劉夢芙의 <陸游的儒家思想與崇高人格——駁錢鍾書論陸詩之說>(《韓山師範學院學報》 2013年 第5期) 등.

중시, 옥유 시의 淵源, 그리고 옥유 시의 校注 作業 등에 대해 언급했다. 《管錐篇》과 《錢鍾書手稿集》에서는 《談藝錄》이나 《宋詩選註》처럼 옥유나 그의 시에 대해 따로 章節을 마련하지 않고, 옥유 시의 특색이나, 옥유의 개별 詩句의 出處나 유사한 표현 등등에 대해 단편적으로 언급하였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거론된 내용 중 주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陸游의 呂本中 ‘活法’ 理解

《談藝錄》 제32조 앞부분에서 저자는 옥유가 呂本中の ‘活法’의 뜻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옥유 자신의 시가 바로 輕滑한 병폐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였다고 지적하였다. 《談藝錄》의 저자는 우선 劉克莊이 《後村大全集》 卷95 <江西詩派小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인용하였다.³⁾

謝朓의 시를 가지고 살펴보면 비단 짜는 사람이 베틀로 비단을 짜고 玉을 다루는 匠人이 옥을 쪼는 것 같이 기술을 다하고 교묘함을 다한 다음에야 流轉·圓美할 수 있다. 근래의 시를 배우는 사람들은 彈丸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쉽게 시를 써나가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陸游의 시에서 말하기를 ‘彈丸의 의론이 바야흐로 사람을 그릇되게 한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呂本中の 시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이 시집의 서문을 보면 탄환과 같다고 한 말이 쉽게 시를 써나가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⁴⁾

3) 錢鍾書의 《談藝錄》(三聯書店, 2007) 294쪽에는 劉克莊이 인용한 옥유의 시구가 <答鄭虞任> 7古에 보인다고 하였으나, 이 시의 정식 제목은 <答鄭虞任檢法見贈>이다.(陸游, 《陸放翁全集》, 世界書局, 1970, 274쪽.) 또 《陸放翁全集》에는 ‘彈丸之評方誤人’이라 되어 있는데, 劉克莊의 글에는 ‘彈丸之說方誤人’으로 되어 있고, 《談藝錄》에서는 ‘彈丸之論方誤人’이라고 하였다.

4) 《談藝錄》, 앞의 책, 291쪽. 以宣城詩考之, 如錦工機錦, 玉人琢玉, 窮功極妙, 然後能流轉圓美. 近時學者誤認彈丸之喻, 而趨於易; 故放翁詩云: ‘彈丸之論方

呂本中이 일찍이 <夏均父集序>에서 “시를 배우려면 마땅히 活法을 알아야 한다. 活法이란 법도가 갖추어져 있지만 법도의 밖에 벗어나고, 변화를 헤아릴 수 없지만 법도를 어기지 않는 것이다. 謝朓의 말에 ‘좋은 시는 탄환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참된 活法이다.(學詩當識活法. 活法者, 規矩備具, 而出於規矩之外, 變化不測, 而不背於規矩. 謝玄暉有言: ‘好詩如彈丸’, 此眞活法也.)”라고 말한 바 있다. 유극장이 보기에, 시는 비단을 짜거나 玉을 쪼듯 온갖 공을 들여야 되는데, 근래의 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탄환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誤認)’ 쉽게 시를 써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를 목도하고 이를 우려하면서, 이전에 육유 역시 개탄의 뜻을 드러내었던 시를 예로 들었다. 그런데 <<談藝錄>>에서는 陸游가 시에서 ‘탄환의 의론이 바야흐로 사람을 그르친다.(彈丸之論方誤人)’라고 말한 것은 여본중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陸游 자신의 시가 바로 輕滑한 병폐를 면치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말을 하였다고 평했다.⁵⁾ 유극장과 마찬가지로, 육유 역시 시에서 근래의 사람들이 ‘탄환의 비유로 시를 논한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 呂本中이 ‘活法’을 ‘탄환으로 비유하며 시를 논한 말’의 잘못이라고 그가 여긴다든가, ‘탄환의 비유로 시를 논한 말’ 그 자체를 맞았다 틀렸다고 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근래의 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육유의 생각을 살펴보면, 그는 <答鄭虞任檢法見贈>에서 ‘彈丸之論方誤人’이라는 말 바로 앞에서 ‘구구한 圓美는 뛰어난 것이 아니네.(區區圓美非絕倫)’라고 말했다. ‘區區’라는 글자를 사용한 것은 얼핏 보아 呂本中의 ‘活法’설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呂本中 자신도 ‘活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두 자를 사용한 적이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여본중이 ‘활법’에 대해

誤人.’ 然則欲知紫薇詩者, 觀此集序, 則知彈丸之語, 非主於易.

5) 같은 책, 294쪽. 放翁自作詩, 正不免輕滑之病, 而其言如是.

설명을 하였는데, 그것으로 그치고 않고 바로 뒤이어 몇 마디 말을 더 하여, “그러나 나의 ‘區區’한 주장은 모두 漢·魏 이래 글쓰기에 뜻을 둔 사람들의 法이지 글쓰기에 뜻을 두지 않은 사람들의 法은 아니다.”⁶⁾라고 말했다. ‘글쓰기에 뜻을 둔 사람들의 法’과 ‘글쓰기에 뜻을 두지 않은 사람들의 法’을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黃庭堅도 일찍이 강조한 바 있다.⁷⁾ 여본중은 이 말을 이어서 이른바 孔子의 ‘興, 觀, 群, 怨’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의 사회적 功用, 정치적 功用을 중시했으며, 《東萊先生詩集》에서는 “가슴 속의 먼지를 제거하니 점차 詩語가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네.”, “붓의 끝에 活法을 전하니 가슴 속이 圓滿하게 이루어지네.”, “문장에 活法이 있어, 앞의 옛사람들과 나란히 할 수 있고, 묵묵히 생각하면 지혜가 더불어 이루어져,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네.”라고 하였는데,⁸⁾ 이것은 바로 性情이나 德性의 涵養 공부, 즉 ‘養氣’ 공부를 강조한 것이다. 여본중이 말하는 ‘活法’의 ‘活’은 단순한 作詩의 기교나 표현방법의 문제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며, 이보다 더 중시한 것이 바로 心性의 修養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談藝錄》에서 인용한 육유의 시구 앞의 두 句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原詩에서는 ‘글은 모름지기 屈原과 宋玉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니, 만 길 되는 푸른 하늘에서 난새와 봉황새 내려오는 듯 하네.(文章要須到屈宋, 萬仞青霄下鸞鳳)’라고 하였다. 이것은 육유가 시에 있어서 雄渾한 氣象을 중시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바로 心性 涵養 공부의 결과로 詩文에 나타난 기상이기도 하다.⁹⁾ 특히 南宋 中, 後期 詩壇에 柔弱한 시풍이 유

6) 然余區區淺末之論, 皆漢魏以來有意於文者之法, 而非無意於文者之法也. 吳文治主編, 《宋詩話全編》 卷3, 鳳凰出版社, 2006.10, 2908쪽.

7) 黃庭堅, 《豫章黃先生文集》 권17 <大雅堂記>: “杜甫 詩의 妙處는 바로 글에 뜻이 없다는 데에 있는데, 뜻이 없으면서도 뜻이 이미 지극하다.(子美詩妙處乃在無意於文, 夫無意而意已至.)” 같은 책, 卷2, 941쪽.

8) 呂本中, <外弟趙才仲數以書來論詩, 因作此答之>: “胸中塵埃去, 漸喜詩語活”(傅璇琮等主編,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1, 第8冊 18056쪽), <別後寄舍弟三十韻>: “筆頭傳活法, 胸次即圓成”(같은 책, 18086쪽), <大雪不出寄陽翟寧陵>: “文章有活法, 得與前古并, 默念智與成, 猶能愈吾病”(같은 책, 18098쪽).

9) 육유는 <上辛給事書>에서 “그러나 글이란 거짓을 용납하지 않음을 알게 되니,

행하고 士人들의 氣概는 날로 衰弱해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육유는 이를 대단히 우려하였다. 이러한 그의 입장에서 볼 적에 육유는 ‘圓美’만 추구하며 가볍게 시를 쓰는 것을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육유 시의 詩學 淵源의 측면에서 볼 적에, 여본중의 ‘活法’說 자체를 육유가 반대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여본중의 ‘활법’설이 曾幾에게 직접 전해졌고, 다시 曾幾를 통하여 육유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육유는 <贈應秀才>시에서 “내가 茶山先生(曾幾를 가리킴)이 옮겨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詩文은 절대로 死句를 써넣는 것을 삼가야 한다.(我得茶山轉語, 文章切忌參死句)”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육유 시의 실제 창작특색 면에서 볼 적에, 《談藝錄》의 저자는 육유가 자신의 시는 ‘輕滑’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여 모순되는 말을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 역시 육유와 여본중, 증기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본중이 ‘활법’설을 제창한 것은 당시 江西詩派 末流가 시법에 매이고 이들의 시가 難澁한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서였는데, 여본중은 실제 창작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을 실천하였다. 方回는 《瀛奎律髓》에서 여본중의 시를 평하여 ‘輕快’하다고 하였다. 즉, “呂居仁은 강서시파 중에서는 詩想이 가장 流動的이고 停滯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시는 활발한 것이 많다.”¹⁰⁾ “그의 시는 江西詩派를 宗主로 삼으면서도 자연스러움을 위주로 하여 彈丸法이라 일컬어진다.”¹¹⁾고 논평했다. 《談藝錄》의 저

그러므로 그 몸을 신중히 하고 그 氣를 기르는 것을 힘써야 한다.(然知文之不容於僞也, 故務重其身而養其氣.)”라고 하였고(《陸放翁全集》, 72쪽), <次韻和楊伯子主簿見贈>에서 “누가 氣를 함양하여 天地間을 가득 채우며, 氣를 뿜을 때마다 무지개를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을까.(誰能養氣塞天地, 吐出自足成虹霓.)”라고 말하며 ‘養氣’를 중시하는 뜻을 거듭 나타내었다.(같은 책, 362쪽)

10) “居仁在江西派中, 最爲流動而不滯者, 故其詩多活.”(《瀛奎律髓》 권17 晴雨類 呂本中 <柳州開元寺夏雨>詩批) 李致洙, <陸游詩와 江西詩派>, 《中語中文學》第6輯, 1984, 154쪽.

11) “其詩宗江西而主於自然, 號彈丸法.”(같은 책, 권4 風土類 呂本中 <海陵雜興>詩批) 李致洙, 앞의 논문, 154쪽.

자도 《宋詩選註》에서 여분중의 시를 평하면서, 비록 그의 시가 완전히 黃庭堅과 陳師道の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강서시파의 딱딱하고 難澁한 것과는 달리 ‘輕快’함을 특색으로 들었다.¹²⁾ 《宋詩選註》에서는 또 曾幾의 시를 평하면서 “그의 풍격은 여분중보다 ‘輕快’하며, 특히 일부분의 근체시는 활발하고 힘을 들이지 않는다.”¹³⁾고 평했다. 육유의 시 역시 이러한 시풍을 이어 받으면서 강서시파 末流 詩의 生硬하고 艱澁한 점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曾幾가 육유의 시를 평하면서, 육유 시의 淵源이 여분중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평하였는데,¹⁴⁾ 이것은 육유의 시가 바로 여분중의 ‘活法’論과 ‘活法’詩를 따르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육유의 初期詩 중에서 예를 들어보면, 예컨대 <遊山西村>의 “산이 겹겹 물도 겹겹 모여들어 길이 없나 했더니, 버들빛 짙고 꽃 붉은 곳에 마을이 또 하나 있네(山重水復疑無路, 柳暗花明又一村)”는 후세에 전송되는 명구인데, 《唐宋詩醇》은 이를 평해 “彈丸이 손을 벗어난 것과 같음이 있다(有如彈丸脫手)”라고 하면서 ‘彈丸脫手’라는 비유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러한 流麗한 句律과 풍격은 육유 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색 중의 하나이다.¹⁵⁾ 물론 萬首에 가까운 그의 시 중에는 빠른 筆調에 비해 함축적인 내용이 결여된 시도 없지 않으며, 특히 만년에는 시 짓는 것이 거의 日課가 되면서 이러한 시가 제대로 걸리지 않은 채 후세에 그대로 전해진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일부를 가지고 전체의 성취를 부정할 수는 없다.

12) 錢鍾書, 《宋詩選註》, 三聯書店, 2002, 184쪽. 他的詩始終沒擺脫黃庭堅和陳師道的影響, 却卻還清醒輕鬆, 不像一般江西派的堅澁.

13) 같은 책, 203쪽. 他的風格比呂本中的還要輕快, 尤其是一部分近體詩, 活潑不費力.

14) 陸游, 앞의 책, 81쪽, <呂居仁集序>. 某自童子時, 讀公詩文, 願學焉. ……晚見曾文清公, 文清謂某, 君之詩, 淵源殆自呂紫微, 恨不一識面.

15) 李致洙, <陸游詩 淵源考>, 《中國語文學》 第16輯, 1989, 50쪽.

2. 陸游의 梅堯臣 詩 推仰

《談藝錄》 제32조 뒷부분에서 저자는 우선 육유 시는 輕滑한 병패를 면치 못하는데, 그가 “古今의 시인들에 대하여 가장 많이 모방하고 칭찬한 것은 古質함에 치우친 梅堯臣이다”¹⁶⁾는 점을 전제한 다음, 왜 육유가 매요신의 시를 그렇게 좋아하였는가? 라는 궁금함을 내보인 다음, 이에 대해 저자 스스로 추측을 하면서, 이것은 육유가 “梅堯臣에 대하여 자신과 다른 재능의 아름다움을 안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자신의 시의 流易·工秀함을 병패로 여기고 梅堯臣의 깊은 마음과 담담한 모습을 취하여 자신의 症勢에 맞는 약으로 삼으려고 한 것인가?”¹⁷⁾라고 물음을 던졌다.

陳振孫이 일찍이 “梅堯臣의 시는 근세에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혹은 험뜯음을 가하기도 했는데 오직 陸游만은 그를 중시하였다.”¹⁸⁾라고 말했듯이 육유가 매요신을 높인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육유가 매요신의 어떤 점에 대해 찬사를 보냈는지, 이와 관련하여 육유가 매요신 시의 성취를 평한 시와 문장의 요점을 간추려 보면, 첫째, 육유는 매요신이 詩歌復古運動을 통하여 중국 고전시가의 전통을 다시 되찾은 공헌을 높이 평가하였다. <李虞部詩序>에서 “詩歌가 옛날로 돌아가는 데에, 梅堯臣이 홀로 그 宗旨를 잘 지켰네.(歌詩復古, 梅宛陵獨擅其宗.)”라고 하였고, <書宛陵集後>에서는 “元和體의 작품을 돌파하여, 우뚝 홀로 시단의 盟主가 되었네.(突過元和作, 巍然獨主盟.)”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讀宛陵先生詩>에서는 “歐陽修와 尹洙가 六經의 醇正함을 되찾아 오고, 선생의 詩律은 雄渾함에 뛰어났네. 黃河 물을 積石山으로부터 끌어들이니 源流가 바르고, 吳山은 높아 氣象이 드높네.(歐尹追還六籍醇, 先生詩律擅雄渾, 導河積石源流正,

16) 《談藝錄》, 294쪽. 其於古今詩家, 仿作稱道最多者, 偏爲古質之梅宛陵.

17) 같은 책, 296쪽. 庶幾知異量之美者矣. 抑自病其詩之流易工秀, 而欲取宛陵之深心淡貌爲對症之藥耶.

18) 같은 책, 294쪽.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卷17: 聖俞詩, 近世少有喜者, 或加毀訾, 惟陸務觀重之.

維嶽崧高氣象尊.)”라고 칭송했다. 여기서 육유는 매요신의 시를 평하면서 ‘雄渾’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매요신 시를 평하면서 ‘平淡’을 드는 것과 다르며, 앞에서 보았듯이 《談藝錄》의 저자가 일컬은 바 ‘古質함에 치우친 梅堯臣’이라든가, ‘梅堯臣의 깊은 마음과 담담한 모습’이라는 評語와는 一見 전혀 다른 면을 강조한 것이다. 육유가 이러한 평어를 사용하여 매요신을 극찬한 것은 매요신이 드높은 氣象의 바탕 위에서 전통 시가의 올바른 源流를 다시 되찾아 송대의 시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준 점을 높이 기린 것이다. 육유는 만년에 當時의 시단에 晚唐體를 학습하는 조류가 점차 盛해지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옛날 매요신이 西崑體 등이 활약하던 시단의 상황을 우려하던 것과 대단히 흡사한 점이 있다.¹⁹⁾ 그래서 육유가 매요신의 시를 거듭 언급하는 것은 시단을 올바른 길로 이끈 매요신의 공로를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晚唐詩를 비판하는 면에서 입장을 같이 하였다. 둘째, 매요신 시의 淵源이 바른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讀宛陵詩>에서 “李白과 杜甫가 또 나오지 않는데, 梅公는 참으로 장하도다. 어찌 다만 凡骨만 바꾸었을 뿐이겠는가? 요컨대 정수리를 열었다네. 시구 精鍊에 힘은 남아 있지 않고, 淵源은 追從한 바 있다네.(李杜不復作, 梅公真壯哉. 豈惟凡骨換, 要是頂門開. 鍛鍊無餘力, 淵源有自來.)”라고 하였다. 셋째, 매요신 시의 예술상의 뛰어난 성취를 높이 평가하였는데, 《梅聖俞別集序》에서 매요신의 시는 詩語의 安排가 무계가 있고, 詩句의 精鍊은 변화가 뛰어나며, 전체 시의 구성은 周密하고 적절하다고 평하면서, 이런 것들은 배우고자해도 제대로 배울 수 없다고 여겼다.²⁰⁾ 육유는 확실히 매요신의 시를 높이 평가하여 詩文集에서 12군데에 걸쳐서 그에 대해 언급을 하고 매요신의 시를 본받아 지은 시를 남겼다. 그런데 육유는 매요신의 시를 ‘古

19) 매요신은 <答裴送序意>에서 “어찌 唐末의 두세 명 시인들을 취하리오. 區區한 사물들 형상이나 평생토록 같고 다듬었는데.(安取唐季二三子, 區區物象磨窮年.)”라고 말했다. 傅璇琮, 앞의 책, 第5冊, 2865쪽.

20) 周振甫·冀勤 編著. 《錢鍾書談藝錄讀本》, 中央編譯出版社, 2013.3, 293쪽.

質'이라 평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 자신의 시가 流易·工秀함을 병폐로 여기고 梅堯臣의 깊은 마음과 담담한 모습을 취하여 자신의 症勢에 맞는 약으로 삼으려는' 뜻의 말을 비친 적도 없다.

한편, 《談藝錄》에서 육유와 매요신, 두 사람 모두 '平淡'을 중시하고, 시를 지움에 일반 사람들의 口味에 영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는데,²¹⁾ 이러한 지적은 이들의 시학 관련 주장과 이들의 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3. 陸游와 楊萬里 詩 比較

《談藝錄》 제33조에서는 육유와 양만리의 시를 몇 가지 점에서 비교하면서 논하였다. 두 사람의 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비교했다. 첫째, 육유는 남들이 일찍이 말한 바를 새롭게 잘 말하였고, 양만리는 남들이 아직 말하지 못한 바를 능숙하게 말했다.²²⁾ 둘째, 景物 描寫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니, 陸游는 寫景을 잘하였고, 楊萬里는 寫生을 잘하였으며, 陸游는 그림의 工筆과 같고, 楊萬里는 영화의 쾌속 攝影과 같다고 평했다.²³⁾ 셋째, 이들의 시의 후세 流傳과 受容에 관해서, 陸游의 萬首의 시는 세상에 전해져 암송되는데 비해, 楊萬里의 여러 시집들은 수백 년 동안 외롭게 전해지며 거의 아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유감으로 여겼다.²⁴⁾ 넷째, 陸游가 <謝王子林>시에서 자신은 양만리만 못하다고 말하였는데, 《談藝錄》의 저자가 보기에 “陸游가 楊萬里만 못한 것은 바로 너무 工巧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평했다.²⁵⁾ 다섯째, 詩學 淵源과 관련하여

21) 같은 책, 295-296쪽.

22) 같은 책, 298쪽. 人所曾言, 我善言之, 放翁之與古為新也; 人所未言, 我能言之, 誠齋之化生為熟也.

23) 같은 책, 298쪽. 放翁善寫景, 而誠齋擅寫生. 放翁如畫圖之工筆; 誠齋則如攝影之快鏡.

24) 같은 책, 298쪽. 放翁萬首, 傳誦人間, 而誠齋諸集孤行天壤數百年, 幾乎索解人不得.

불 적에, 육유는 曾幾에게서 시를 배웠는데, 後日 전체적인 시가창작의 특색면에서 양만리가 증기의 시에 더 가깝다고 보았다.

위에서 보듯 南宋 中期의 대표 시인인 육유와 양만리 두 사람의 시를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물론 두 사람의 시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비교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니, 이를테면 두 사람 모두 당시 남송이 金과 對峙하던 시대를 살면서 憂國詩를 지었는데, 양만리의 우국시는 특색이 어떠한지, 육유의 시와 비교하면 과연 각기 어떤 특색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빠져 있다. 이에 관해서는 《宋詩選註》의 양만리를 소개하는 글 끝부분에서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양만리는 자연경물에 주로 흥미를 많이 가졌으며, 國事に 관심을 나타낸 시는 육유처럼 작품도 많고 또한 뛰어난 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며, 民生的 疾苦를 동정하는 경우는 범성대보다도 못하니, 서로 비교해 보면 내용상 자질구레한 것처럼 보이며, 그의 시는 매우 총명하고 힘을 들이지 않고 재미있지만 心琴을 울리지는 않으며, 一筆揮之하는 그의 경치 묘사방법 또한 그로 하여금 거친 작품을 많이 쓰도록 만들었다²⁶⁾고 평했다. 《宋詩選註》의 이런 양만리 평은 《談藝錄》에서 찬사를 보낸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양만리 시의 결함 및 양만리가 육유나 범성대보다 못한 점 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談藝錄》에서는 육유 시를 평하면서 “輕滑”한 병폐를 면치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錢鍾書手稿集》에서는 “呂本中과 曾幾의 시는 거칠고 잡다한 곳이 있으며, 범성대와 육유, 양만리는 종종 익숙하고 매끄러움을 면치 못한다.”²⁷⁾라고 평했다. 이것은 남송 中期의 시인 범성대와 육유, 양만리 시의 공통된 특색 중의 하나가 바로 ‘甜熟油滑’이라는 점

25) 같은 책, 298쪽. 放翁<謝王子林>曰: 我不如誠齋, 此論天下同. ……放翁之不如誠齋, 正以太工巧耳.

26) 《宋詩選註》, 256쪽.

27) “東萊、茶山有僞獷無率處, 范、陸、楊每未免甜熟油滑.” 錢鍾書, 《錢鍾書手稿集》, 商務印書館(北京), 2003, 1005쪽, 제443則. 王水照、熊海英의 <陸游詩歌取徑探源—錢鍾書論陸游之一—>(《中國韻文學刊》, 2006, 第20卷 第1期)에서 재인용.

을 지적한 것이며, 남송 初期의 呂本中, 曾幾의 詩와 비교할 때 다른 특색이기도 하다. 이런 例를 통해서도 육유나 양만리에 대한 전종서의 評은 《宋詩選註》와 《談藝錄》, 이 두 권뿐만 아니라 다른 저작물을 두루 읽고 종합을 해야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저자 자신의 評가의 變化를 포함하여)

4. 陸游의 中·晚唐詩 評價

《談藝錄》의 제34조에서는 육유와 中·만당시와의 關係를 논하면서 육유가 이들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실제 창작에서는 이 시기의 시와 비슷한 표현의 육유 시를 몇 가지 든 다음, 육유가 이들을 모방하였다고 보고, “이것으로 유추하건대, 그가 晚唐을 비루하게 여기는 것은 본마음과 달리 高尚한 의론을 한 것일 뿐이다.”²⁸⁾라고 評했다. 또 육유와 양만리 두 사람의 만당시에 대한 觀點을 비교하면서, 양만리는 만당을 배운다고 말했으나 육유는 때로 높은 자리에 앉아 꾸짖는 말을 하였다고 비판했다.²⁹⁾

이와 관련하여 《談藝錄》에서는 우선 淸의 潘德輿가 《養一齋詩話》에서 “陸游는 비록 일찍이 ‘문장의 빛과 불꽃은 엷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데, 심한 자는 스스로 晚唐을 宗主로 삼는다고 말한다네.’(文章光焰伏不起, 甚者自謂宗晚唐.)”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그가 지은 閑居·遣興의 7律은 때때로 許渾을 모방하였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그의 견해에 贊同함을 표시하였다.³⁰⁾ 육유와 中·만당 시인, 특히 許渾과의 關係 등에 대해 살펴 보기 위해 우선 관련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자료를 연대순으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은 詩文을 들 수 있다. 즉, 59세(1183)에 지은 <記

28) 《談藝錄》, 316쪽. 以此類推, 其鄙夷晚唐, 乃違心作高論耳.

29) 같은 책, 320쪽. 誠齋肯說學晚唐, 放翁時時作喬坐衙態, 訶斥晚唐, 此又二人心術口業之異也.

30) 같은 책, 315쪽. 《養一齋詩話》卷四、卷五皆謂, 放翁雖嘗云: “文章光燄伏不起, 甚者自謂宗晚唐”, 而所作閑居、遣興七律, 時仿許丁卯云云, 頗有見地.

夢>, 67세(1191)의 <跋後山居士長短句>, 73세(1197)의 <跋許用晦丁卯集>, 77세(1201)의 <追感往事>, 81세(1205)의 <跋花間集>, 84세(1208)의 <讀近人詩>, 같은 해의 <示子通>, 그리고 <宋都曹屢寄詩且督和答作此示之>가 있다.

육유가 만당 시인을 언급한 이상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육유는 詩가 晚唐이나 唐末에 이르러서는 쇠미해져서 앞의 이백과 두보의 시가 전통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육유는 만당 시인들이 예술상으로는 매우 힘을 기울여서 확실히 상당한 정도의 조예에 이르렀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이들이 점차 이백과 두보의 優良한 전통을 상실하였다고 보았다. 그것은 바로 宏闊한 境界요 雄渾奔放한 氣勢요, 위대한 인격과 심후한 정감의 기초 위에 세워진 雄豪한 풍격이니, 실제로는 盛唐氣象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元稹과 白居易 때부터 이런 기상은 점차 詩壇에서 소실되어갔으며, 만당에 이르러서는 시풍이 날로 더욱 瑣細하고 卑俗하며 萎靡하여 떨치지 못하는 쪽으로 나아갔는데, 이것이 바로 육유가 깊이 미워하고 애통해 마지않는 만당시의 症狀이라 할 수 있다.³¹⁾ 육유가 만당 시기의 시를 비판하는 것은 만당 오대의 시인들이 그 옛날 《詩經》과 《楚辭》가 대표하는 고전 시가의 정통을 제대로 계승하며 시대를 걱정하는 雄健한 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희한 형식 표현의 추구에만 치우친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이다. 육유는 詩文을 논하면서 詩文과 氣의 관계를 중시하며 작가의 思想과 品德의 修養을 중시했다. 그는 당시 남송이 한쪽 모퉁이에서 偏安하며 士氣가 위축된 현실을 목도하고 시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風節을 비판하며 “문장은 날로 衰陋함에 가까워지고, 氣概는 衰弱해지는 것을 탄식한지 이미 오래 되었네.”³²⁾라고 하였다. 남송뿐 만 아니라 옛날의 만당 때도 그러하였으니, 그가 唐末 五代의 《花間集》 작가들에게 嚴厲한 비평을 가하는 것

31) 莫礪鋒, <論陸游對晚唐詩的態度>, 《文學遺產》 1991年 第4期, 83쪽.

32) 陸游, 앞의 책, 668쪽, <醉中歌>. 文章日益近衰陋, 風節久已嗟陵夷.

은 그들이 국가의 動亂 시기에 처하여 민생의 疾苦는 아랑곳 않고 단지 歌酒에만 빠져들었기 때문인데³³⁾, 육유가 만당의 시에 대해 비판적인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육유와 동시대인 俞文豹도 《吹劍錄》에서 晚唐體를 비판하였는데 육유와 같은 論調였다. 여기서 그는 근래의 시인들이 만당체의 시를 즐겨 짓는데, 이들은 당나라가 만당에 이르러 氣象이 점차 미약해 진 것은 알지 못하고, 시를 지음에 한 가지 제목에 구애되거나 격률에 얽매이며, 文采가 輕淺하고 纖微하여 더 이상 옹혼한 氣象이 없는데 이것을 추구하려도 그런 역량이 없으며, 당나라 전성기 때의 시를 본받지 않고 晚唐의 슬픈 생각의 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³⁴⁾ 晚唐, 혹은 唐末의 시에 대해서는 육유 이전에도 이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육유 동시대에도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둘째, 육유는 시가의 발전사 측면에서 볼 적에 이백과 두보 이후의 시는 시대를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점점 예전만 못해 간다고 여기고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러므로 中唐 시인의 경우에도, 두보의 시를 典範으로 보았을 때, 백거이와 원진의 시는 두보만 못하다는 의미이지 백거이의 시를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백거이의 시를 읽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육유는 晚唐의 시인을 모두 부정하거나 비판한 것은 아니다. 許渾의 시는 걸작이라고 높이 평했으며, 楊萬里的 시를 칭송하면서 溫庭筠을 들어 비유를 한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³⁵⁾ 육유가 특히 비판을 하는 대상은 ‘大中 이후’로, ‘이 이후에는 唐의 시는 더욱 쇠퇴하였고’ ‘詩家가 날로 천박해졌다’고 비판했다. ‘大中’은 唐 宣宗 때의 年號로 847年 正月에서 860年 十月 사이의 기간을 가리킨다. 白居易는 772년에

33) 같은 책, 186쪽, <跋花間集>. 《花間集》, 皆唐末五代時人作, 方斯時, 天下岌岌, 生民救死不暇, 士大夫乃流宕如此, 可歎也哉. 或者亦出於無聊故邪.

34) 近世詩人好為晚唐體. 不知唐祚至此, 氣脈浸微, 求如中葉之全盛, 李、杜、元、白之瑰奇, 無此力量. 今不為中唐全盛之體, 而為晚唐哀思之音. 錢仲聯, 《劍南詩稿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85.9, 卷5, 2871쪽.

35) 陸游, 앞의 책, 337쪽, <楊廷秀寄南海集>. 飛卿數闕嶠南曲, 不許劉郎誇竹枝. 四百年來無復繼, 如今始有此翁詩.

태어나서 846년에 사망하였고, 杜牧은 803년에 태어나서 대략 852년에 사망했으며, 李商隱은 대략 812년, 혹은 813년에 태어나서 대략 858년에 사망했고, 溫庭筠은 대략 812년에 태어나서 대략 866년에 죽었으며, 許渾은 生卒年이 未詳이나 832년에 진사 급제를 하였다. 옥유가 晚唐이나 唐末의 모든 시인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옥유의 晚唐詩(혹은 唐末의 시)에 대한 비판은 현실적인 문제와 특히 결부되어 있다. 77세 때에 시단의 쇠미한 풍조를 보고 “문장의 빛과 불꽃은 멀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심한 자는 스스로 晚唐을 宗主로 삼는다고 말한다네.”라고 하여 우려를 표시했으며, 84세 때에는 ‘晚唐을 宗主로 삼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는 시를 잇달아 지었다. 그러므로 옥유의 만당체 비판은 그가 죽기 8년 전부터 시작해서 시단에 일어나는 특정 상황을 목도하고 우려하는 생각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우려하고 비판하는 대상은 특히 永嘉四靈을 가리키는 것이다. 옥유는 남송의 중기 이후 시단에 晚唐體를 추종하는 시인들이 등장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옥유는 남송 당시 四靈의 시를 ‘卑陋俚俗’³⁶⁾, ‘淫哇’³⁷⁾라고 평하며 결코 학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옥유는 당시 士人들의 氣節이 땅에 떨어진 것을 목도하고, 그들이 山林에 물러나서 細碎한 字句의 雕琢이나 힘쓰는 四靈을 模襲할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道統과 詩學의 正統을 표방하여 경계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晚唐詩를 貶下하는 江西詩派의 論調를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은 아니다. 옥유는 前代의 많은 시인들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江西詩派의 폐단을 矯正하고자 하였다. 옥유가 만당시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어지러운 시대에 시가의 정통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쇠락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며, 양만리의 경우는 강서시파의 작풍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에서 만당시에 주목한 것이다.

36) 같은 책, 90쪽, <陳長翁文集序>. 或以卑陋俚俗爲詩. 여기서의 ‘或’은 ‘四靈’을 가리킨다.

37) 같은 책, 1079쪽, <宋都曹屢寄詩且督和答作此示之>. 及觀晚唐作...淫哇解移人.

5. 陸游 詩의 缺陷

《談藝錄》 제35조에서는 육유 시의 句法, 詞意 및 제목의 重複과 議論의 不適切을 문제점으로 들고, 제37조에서는 육유의 두 가지 어리석은 일과 두 가지 벼슬아치의 말투에 대해 논했다. 두條 모두 육유 시의 결함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에 여기서는 같이 다루기로 한다.

① 우선 《談藝錄》 제35조의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陸游는 문체가 많아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意境은 실은 변화가 적다. 예로부터 大家들도 心思와 句法이 겹쳐서 나타나고 거둬 보이지만 것처럼 많은 사람은 없다.”³⁸⁾고 평했다. 이 점은 이미 明代의 朱彝尊 以來로 육유 시의 결함으로 지적해 온 바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清代의 沈德潛이 이미 말을 한 바가 있으며, 《談藝錄》에도 그의 말을 인용했는데, “육유는 詩草가 많고 또 많으니, 중간에 어떻게 중복과 잘못이 없겠는가? 후인들은 비웃고 지적함이 너무 쉬우니, 말채적으로 문짜를 가리키며 그 숫자를 세는 것은 번잡하고 가혹한害가 있다네.”라고 말했으며, 심덕잠은 또 自注에서 朱彝尊을 가리킨다고 밝혔다.³⁹⁾ 육유 시의 句法과 詞意 및 제목의 重複은 실제로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 전하는 85권의 시집 중 앞의 20권은 육유가 嚴州에 있으면서 직접 刪定을 가한 것이라 이런 중복의 문제가 비교적 적으나, 그 이후의 것은 미처 다듬을 겨를이 없이 그대로 수록이 되어 이런 점이 보이게 된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는 ‘詩中議論’이다. 《宋詩選註》 서문에서 저자는 宋詩의 缺陷으로 理致를 말하고 議論을 펼치기 좋아하는 점을 들은 바 있다.⁴⁰⁾ 육유 시의 경우에는 사리에 비추어 긍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육유

38) 《談藝錄》, 321쪽. 放翁多文爲富, 而意境實尠變化. 古來大家, 心思句法, 複出重見, 無如渠之多者.

39) 같은 책, 323쪽. 沈確士 《歸愚詩鈔·與集》 卷七<書劍南詩稿後>: “劍南詩草多復多, 中間豈無複與訛. 後人嗤點太容易, 以枚數闔傷繁苛”, 自註謂朱竹垞.

40) 《宋詩選註》, 序, 7쪽. 宋詩還有缺陷, 愛講道理, 發議論.

자신의 말이 앞과 뒤에서 모순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를테면 육유가 <老學菴詩>에서 “문사는 끝내 道와 서로 방해가 된다네.”(文詞終與道相妨)라고 말하면서, 육유 자신은 萬首의 시를 지었으니, 이것은 “나쁜 버릇을 아직 씻어내지 못하며 장식적인 상투어를 지어냈다”라고 평했다.⁴¹⁾ 그러나 이 시의 본뜻은 육유가 道 공부를 중시하여, 혹시 시를 지을 때 浮華한 文辭의 조탁에 너무 빠지는 것을 스스로에게 警戒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談藝錄》 35條에서 저자는 前代의 陸游 評者, 특히 청대의 趙翼에 대해 비판하였는데, 여기서 육유가 어린 자식(또는 첩의 자식)을 위해 韓侂胄에게 <南園記>를 지어주었다는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와 劉燾의 《隱居通議》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육유의 만년 變節 문제와 관련해서는 육유 당시에 이미 그에 찬동하지 않는 견해가 있었으며, 현대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육유에 관한 이러한 말들이 誤解라고 밝힌 바 있는데 《談藝錄》의 저자는 별다른 변별이나 분석을 가하지 않았다.

② 《談藝錄》 제37조에는 육유의 두 가지 어리석은 일과 두 가지 벼슬 아치의 말투(放翁二癡事二官腔)에 대해 논했다. 첫째, 육유에게 두 가지 어리석은 일이 있으니 그것은 자식을 칭찬하기 좋아하고, 꿈 이야기를 하기 좋아한 것이라고 말한 다음,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식은 사실 평범한 재목이고 꿈은 너무 得意하여 이미 사람이 싫증이 나게 한다.”⁴²⁾고 말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육유의 관련 詩나, 다른 사람의 관련 자료를 인용하여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시구를 인용하는 방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성장한 뒤의 훗날의 사례를 통해서 육유의 자식이 ‘평범한 재목’임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詩 자체를 가지고 육유의 倫情詩를 살필 필요가 있다. 육유의 시집에는 父子, 祖孫의 情을 읊은 시가 상당수 있다. 자손들의 공부를 이끌어 주는 말을 하거나, 같이 지내는 즐거움을 노래하며, 혹은

41) 《談藝錄》, 326쪽. 放翁習氣未澹, 作門面套語.

42) 같은 책, 334쪽. 放翁詩余所喜誦, 而有二癡事: 好譽兒, 好說夢. 兒實庸材, 夢太得意, 已令人生倦矣.

자손들과 떨어져 지내는 그리움을 나타내었는데, 작품 수도 많고 내용이 풍부하여 다른 작가와 비교할 적에 아주 두드러지는 특색을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육유의 시집에는 꿈 이야기 시가 많아 이것이 육유 시의 큰 특색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런 紀夢詩는 대체로 육유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꿈을 통해 기탁한 것이다. 157수에 달하는 많은 시를 통해, 平戎의 꿈, 遠遊의 꿈, 方外の 꿈, 自適의 꿈, 倫情의 꿈, 故鄉의 꿈 등등, 다양한 내용과 주제를 보여주었다.⁴³⁾

《談藝錄》의 저자는 또 육유에게는 ‘두 가지 벼슬아치의 말투’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세상을 바로잡아 구제하는 계책과 心性의 학문을 말하기 좋아한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그 이유로는 ‘하나는 자랑하고 허풍을 떠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하나는 진부하여 싫증이 난다.’⁴⁴⁾라고 말했다. 특히 전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陸游의 愛國詩 중에는 功名の 생각이 임금과 나라의 생각보다 많았다.⁴⁵⁾ 지나치게 꾸며대고 걸치레를 하며, 위험한 일을 쉽게 말하였다. 臨終 때의 칠언절구 28자를 제외하면 좋은 작품이 많지 않고, 문집의 <書賈充傳後>처럼 平實한 작품을 찾아보아도 숫자가 적으며”⁴⁶⁾ “자태를 꾸밀 뿐 아니라 또 거짓되게 행하는 듯이 보이고” “자부심이 매우 높고, 일을 너무 쉽게 본다”고 혹평했다.⁴⁷⁾ 이처럼 《談藝錄》에서는 육유의 애국시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⁴⁸⁾

43) 李致洙, 《陸游詩研究》, 文史哲出版社, 1991.9, 176-178쪽.

44) 《談藝錄》, 334쪽. 復有二官腔: 好談匡救之略, 心性之學. 一則矜誕無當, 一則酸腐可厭.

45) 그러나 육유에 있어 ‘功名’은 개인적인 富貴榮華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異民族에게 잃어버린 옛 땅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乾隆帝의 명에 의해 편찬된 《唐宋詩醇》에서는 “感慨悲憤하며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성실함을 한결같이 시에 깃들였다.(其感激悲憤忠君愛國之誠, 一寓於詩)”라고 높이 평했다. 孔凡禮·齊治平, 《陸游卷》, 中華書局, 1965, 215쪽.

46) 《談藝錄》, 334쪽. 放翁愛國詩中功名之念, 勝於君國之思. 鋪張排場, 危事而易言之. 舍臨歿二十八字, 無多佳什, 求如文集<書賈充傳後>一篇之平實者少矣.

47) 같은 책, 334쪽. 似不僅“作態”, 抑且“作假”也. …自負甚高, 視事甚易.

48) 이에 대해, 劉夢芙는 <陸游의 儒家思想與崇高人格——駁錢鍾書論陸詩之說> (《韓山師範學院學報》 2013年 第5期)에서 육유의 家世, 재능과 생애 사적에

그러나 똑같은 육유의 애국시에 대해 《宋詩選註》에서는 《談藝錄》과는 다른 평가를 하였다. 첫째, 육유의 경우, 애국적인 정서가 전 생명 속에 가득 차있고 그의 전 작품 속에 넘치고 있다⁴⁹⁾고 하여, 애국시가 육유의 작품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대표성에 대해 지적했다. 둘째, 송대의 다른 시인들의 애국시와 비교를 하면서, 靖康의 變 이후, 송대 시인들의 애국적인 작품은 그 숫자가 날로 증가하였으나, 이들은 단지 國事에 대한 憂憤 혹은 희망만을 표현했을 뿐 결코 재난 속에 투신하여 생명과 힘을 모두 국가에 바친다는 비장한 의지와 커다란 願望이 없었는데, 바로 이점에서 육유의 애국시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⁵⁰⁾ 셋째, 육유의 애국시와 두보의 시를 비교하여, 육유가 시에서 애국, 憂國의 정사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救國, 衛國의 배포와 결의까지 밝힌 것은 杜甫에게는 없는 境界라고 평했다.⁵¹⁾ 넷째, 육유는 현실에서 어떤 사물을 접하고 행동을 하든, 언제나 나라의 원수를 갚고 나라의 치욕을 씻으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뜨거운 피는 또 그의 꿈속까지 넘쳐 들어가는데, 이 역시 다른 사람의 시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⁵²⁾ 이상과 같이, 《宋詩選註》에서는 《談藝錄》과는 달리 육유의 애국시에 대해 대단히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앞에서 보았듯이 《談藝錄》에서는 비판적이었던 紀夢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상에서 주요하게 살펴본 내용 외에도 전종서의 陸游論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談藝錄》 제36條에서는 육유의 성격과 작시 취향, 그리고 작시법의 주장 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陸游의 高명한 성품은 沈潛을 잘

대해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고찰하여야지, 假設과 추측으로 사실을 대체하여 판단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49) 《宋詩選註》, 272쪽.

50) 같은 책, 271쪽.

51) 같은 책, 271-272쪽.

52) 같은 책, 272쪽.

견디지 못하기에 시를 지움에 寫景·敘事に 精妙하였다.”⁵³⁾고 말하면서, ‘詩外三昧’와 ‘詩外工夫’를 이야기한 시를 예로 들었다.⁵⁴⁾ 전종서는 종종 연구 대상자의 성격이나 기질 파악을 기초로 하여 시인이나 작품을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또 다른 예로는 육유가 許渾을 좋아한 것은 기질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것을 들 수 있다.⁵⁵⁾

② 《宋詩選註》序에서는 육유의 애정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唐·宋 시대에는 ‘愛情’이란 문학적 주제는 대부분 詞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陸游의 시 몇 수를 제외하고는 송대의 그 수가 많지 않은 애정 시들은 모두 담박하고 졸렬하며 상투적이라고 평했다.⁵⁶⁾

③ 《宋詩選註》에서는 육유 시의 주된 내용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즉, 中原 수복을 노래한 悲憤激昂의 시와 일상생활과 경물을 표현한 閑適細膩의 시인데, 이 두 가지 내용은 각 시기마다 독자들이 좋아하는 바가 달라, 육유와 시대가 가까웠던 때에 첫째 방향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었고, 明代 중엽에는 그가 매우 냉대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독자들은 두 번째 내용을 좋아하였으며, 청대 말년에 와서 독자들은 다시 육유의 첫째 방향의 작품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고 평했다.⁵⁷⁾

④ 육유 시의 淵源에 대해, 육유가 曾幾를 스승으로 삼았으나 시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강서시파를 잇지 않았으며, 당대에는 백거이, 두 보, 이백이 육유의 시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했다.⁵⁸⁾

⑤ 《宋詩選註》에서는 또 육유 시의 校注와 관련하여, 元代에 이미 聞仲和가 육유의 시에 注를 달았으며, 清代의 乾隆, 嘉慶 연간에 許美尊이 육유의 일부분의 시에 상세하고 치밀한 주해를 하였는데, 이 두 사람의 注釋은 책으로 전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⁵⁹⁾

이상으로 《談藝錄》과 《宋詩選註》를 중심으로 陸游論의 요점을 살펴

53) 《談藝錄》, 329쪽. 高明之性, 不耐沈替, 故作詩工於寫景敘事.

54) 《宋詩選註》에서도 272-273쪽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55) 《談藝錄》, 316쪽. 放翁嗜好, 獨殊酸鹹, 良由性分相近.

56) 《宋詩選註》, 序, 8쪽.

57) 같은 책, 270쪽.

58) 같은 책, 273쪽.

59) 같은 책, 273-274쪽.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錢鍾書의 陸游論의 성격 및 특색을 살펴볼 수 있었다.

Ⅲ. 나가는 말

전종서의 육유론은 오늘날에도 육유의 시를 읽고 연구하는 사람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래서 그가 육유를 논한 부분을 새로이 검토해보는 것은 육유의 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작금의 육유 연구의 성과를 점검하는 육유 硏究史의 입장에서든 의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육유론을 통독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느낄 수 있다.

첫째, 전종서의 육유론은 육유와 육유의 시에 대해 다방면에 걸쳐 논했다. 육유 시의 주요 내용 제재와 형식 표현상의 특색을 비롯하여, 육유의 시학 관련 생각 및 詩論, 육유 시의 연원, 후세의 流轉 및 受容, 육유 시의 결함, 그리고 옛날에 행해진 육유 시의 校注 작업의 상황 등을 두루 다루었다. 둘째, 육유 시를 평하면서 중국과 서양의 여러 관련 자료들을 인용하였다. 셋째, 전종서의 육유론은 연구 대상인 시인의 기질 파악을 기초로 하여 작품을 평가하고, 간혹 다른 작가와 비교를 하였다. 넷째, 전종서의 육유론은 《談藝錄》와 《宋詩選註》를 비롯한 여러 책에 흩어져 실려 있어, 여러 저작을 두루 읽어야 저자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섯째, 전종서의 육유론 중의 주요 내용이자, 육유 시에 대한 이해에서 주요한 의미를 지니는 몇 가지 사항들, 이를테면 呂本中の ‘活法’에 대한 육유의 이해, 육유의 梅堯臣 詩 推仰, 육유의 中·晚唐詩 평가, 그리고 육유 시의 주요 내용 평가와 육유 시의 결함 指摘 등에 대해서는 그의 논의를 새롭게 살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저자가 미처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종서의 육유론을 새로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육유의 시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기약한다.

<References>

1. Fu Xuancong editor-in-chief, *Quan Song Shi*, Bei Jing University Publishing house, 1991.
2. Kong Fanli, Qi Zhiping, Lu You Juan, Zhonghua publishing house, 1965.6.
3. Lee Chisoo, *The study of Lu You's poems*, WenShiZhe Publishing House, 1991.9.
4. Lee Chisoo, *The Origin of Lu You's poems*.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1989. Vol.16.
5. Lee Chi-soo, *Lu You's Poetry and Jianghu Shi Pai*, *The Journal of language and literature*, 1988. Vol.13.
6. Liu Mengfu, *Lu You's Confucian Thoughts and Lofty Personality — A Refutation to Qian Zhong-shu's Comment on Lu You's Poems*, *Journal of Hanshan Normal University*, 2013. Vol.34, 5.
7. Lu You, Lu Fang Weng Quan Ji, World Journal Book Store, 1970.11.
8. Mo Lifeng, *On Lu You's Attitude towards the Poems in Late-Tang*, *Literary Heritage*, 1991. Vol.4.
9. Qian Zhonglian, *Jian Nan Shi Gao Jiaozhu*, Shanghai Ancient Books House, 1985.9.
10. Qian Zhongshu, *Annotated Selection of Song Poetry*, SDX Joint Publishing Company, 2002.5.
11. Qian Zhongshu, *Guan Zhui Bian*, SDX Joint Publishing Company, 2007.10.
12. Qian Zhongshu, *Manuscripts of Qian Zhongshu*, Commercial Press, 2003.7.
13. Qian Zhongshu, *Tan Yi Lu*, SDX Joint Publishing Company, 2007.10.

14. Wang Shuizhao, Xiong Haiying, On the Resources of Lu You's Poetry —Qian Zongshu lun Lu You zhi yi, *Journal of Chinese verse studies*. 2006. Vol.20, 3.
15. Wu Wenzhi, The whole series of Song Poetry, Fenghuang Press, 2006.10.

<참고문헌>

1. 傅璇琮 等 主編,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1.
2. 孔凡禮·齊治平, 《陸游卷》, 中華書局, 1965.6.
3. 李致洙, 《陸游詩研究》, 文史哲出版社, 1991.9.
4. 李致洙, <陸游詩 淵源考>, 《中國語文學》 第16輯, 1989.
5. 李致洙, <陸游詩와 江湖詩派>, 《語文研究》(慶北大學校 語學研究所) 第13輯, 1988.
6. 劉夢芙, <陸游의 儒家思想與崇高人格——駁錢鍾書論陸詩之說>, 《韓山師範學院學報》 2013年 第34卷 第5期.
7. 陸游, 《陸放翁全集》, 世界書局, 1970.11.
8. 莫礪鋒, <論陸游對晚唐詩的態度>, 《文學遺產》 1991年 第4期.
9. 錢仲聯, 《劍南詩稿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85.9.
10. 錢鍾書, 《宋詩選註》, 三聯書店, 2002.5.
11. 錢鍾書, 《管錐編》, 三聯書店, 2007.10.
12. 錢鍾書, 《錢鍾書手稿集 容安館札記》, 商務印書館, 2003.7.
13. 錢鍾書, 《談藝錄》, 三聯書店, 2007.10.
14. 王水照·熊海英, <陸游詩歌取徑探源——錢鍾書論陸游之一>, 《中國韻文學刊》 2006年 第20卷 第3期.
15. 吳文治, 《宋詩話全編》, 鳳凰出版社, 2006.10.

<Abstract>

Lu You was a prominent poet of China's Southern Song Dynasty, he became a subject of comments by many people from the Yuan, Ming and Qing Dynasties through the present day. Qian Zhongshu also made some analysis on Lu You in his book *Tan Yi Lu*, *Annotated Selection of Song Poetry*, *Guan Zhui Bian* and *Manuscripts of Qian Zhongshu*. After we read through his books about Lu You, there could be several point to be made. The first, Qian Zhongshu dicussed about Lu You and his poems in many ways. The second, he's quoted Chinese and the Western research materials to comment Lu You's poems, trying to substantiate his opinion. The third, If we want to get a general overview, we have to read his books carefully, including *Tan Yi Lu* and *Annotated Selection of Song Poetry*. It will help us to understand whole meaning of Qian Zhongshu's point of view about Lu You. The fourth, in *Lu You*, Qian Zhongshu took measures of evaluating the works based on figuring out characteristics of the poet who is a subject of study, meanwhile comparing him with other authors to display his distinct features. Lastly, There are a few things we should carefully consider, such as understanding of *Lǚ Benzong'Huo Fa*, honoring Mei Yaochen, evaluation of poem in Late Tang Dynasty and main message of Lu You's pomes. This has not alone main contents of Qian Zhongshu's point of view about Lu You but also has significance to understand Lu You's poems. And there are many sources, which also need to be studied in depth.

Key Words : 錢鍾書(Qian Zhongshu), 陸游論(Discussion on Lu You)

and his Poems), 談藝錄(Tan Yi Lu), 宋詩選註(Annotated Selection of Song Poetry), 管錐編(Guanzhuibian), 錢鍾書手稿集(Manuscripts of Qian Zhongshu)

